러시아군 우크라 돈바스에 화력 집중

동남부에 병력 증파 대규모 공세
하르키우 격전 민간인 사망자 속출
러, 마리우폴 인도적 통로 항복 촉구

러시아군이 '돈바스 화력 집중' 전략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들어가면서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돈바스 총공세에 나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남부 전선에 투입한 전술대대단(BTG) 수가 지난 24시간 동안 2개 늘어나 총 78개로 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공격을 앞두고 기존 65개 전투부대를 76개로 11개 늘렸는데 재차 병력 보강에 나선 것이다.

AP통신은 전쟁 초기 러시아 전투부대가 700~800명의 병사로 구성됐던 점을 근거로 러시아 병력이 5만5000~6만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는 이 외에 1만~2만명의 외국 용병을 돈바스 지역에 투입한 상태라고 한 유럽 당국자가 AFP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그룹을 비롯해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소집된 전투원으로 구성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용병은 대부분 중화기나 무장 차량이 없는 보병 병력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 곳곳을 공격했다.

제 2도시이자 동부의 중심인 하르키우(하리코프)에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러시아군 공격이 쏟아져 최소 4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르키우에서 동남쪽으로 160㎞ 떨어진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격전이 벌어져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 미콜라이우주 바슈탄카에서도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해 응급실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다수 나왔다고 지역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군은 일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뚫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이 크레민나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고 지금은 크레민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고정밀 미사일로 돈바스 13곳에 있는 60개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가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동·남·북 3면에서 포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이를 위해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공략에 주력해 왔다.

마리우폴은 돈바스와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행정적으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 속한다. 최근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으나 아조우 연대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거점으로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 제철소에는 현재 25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군이 항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군은 이날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 항복 시 생명을 보장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도 러시아는 수차례 이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을 이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한 화상 연설에서 "마리우폴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로 인도주의적 회랑을 만들어 시민을 구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러시아는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36독립해병여단의 세르히 볼리나 소령은 CNN과 전화 인터뷰에서 "제3국이 제철소에 고립된 병사와 시민들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주민이 19일(현지시간) 자전거 앞쪽에 아이를 태운 채 불탄 버스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의무화 폐지된 미국 공항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신중 목소리

"물가 올랐지만 실질소득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이날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신중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MF는 이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3.6%로 0.8%포인트 낮췄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연말 1.75%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속도를 이보다 느리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목표치를 1.9%로 제시했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년여 만에 0.25~0.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 금리' 시대를 끝냈다.

보스틱 총재는 중립 금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중립 금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뜻한다. 연준 정책 결정자 대부분은 중립 금리가 2.25~2.5%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이 제로 금리에서 멀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계 3대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세계연맹 회원 자격 박탈

"우크라이나 예술가 적극 지원"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

19일(현지시간)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은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회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연맹은 자료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만행에 직면해 러시아 정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홍보 도구로 사용되는 대회를 지지하거나 회원으로 둘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젊은 예술가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나 국적에 따른 개별 예술가들의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이전의 입장은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측은 "세계적인 음악 공동체가 정치적 이유로 분열돼 러시아의 뛰어난 음악가들이 피해를 보는 건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다.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는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은 유네스코 산하에 1957년 창설된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10여 개 콩쿠르가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

계정 공유 공짜로 보던 넷플릭스 돈 내나

1억 가구 이상 추정…과금 추진

그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공짜로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 CNBC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분기 서한에서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공유를 묵인해 왔지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면서 공유 계정 상대로 과금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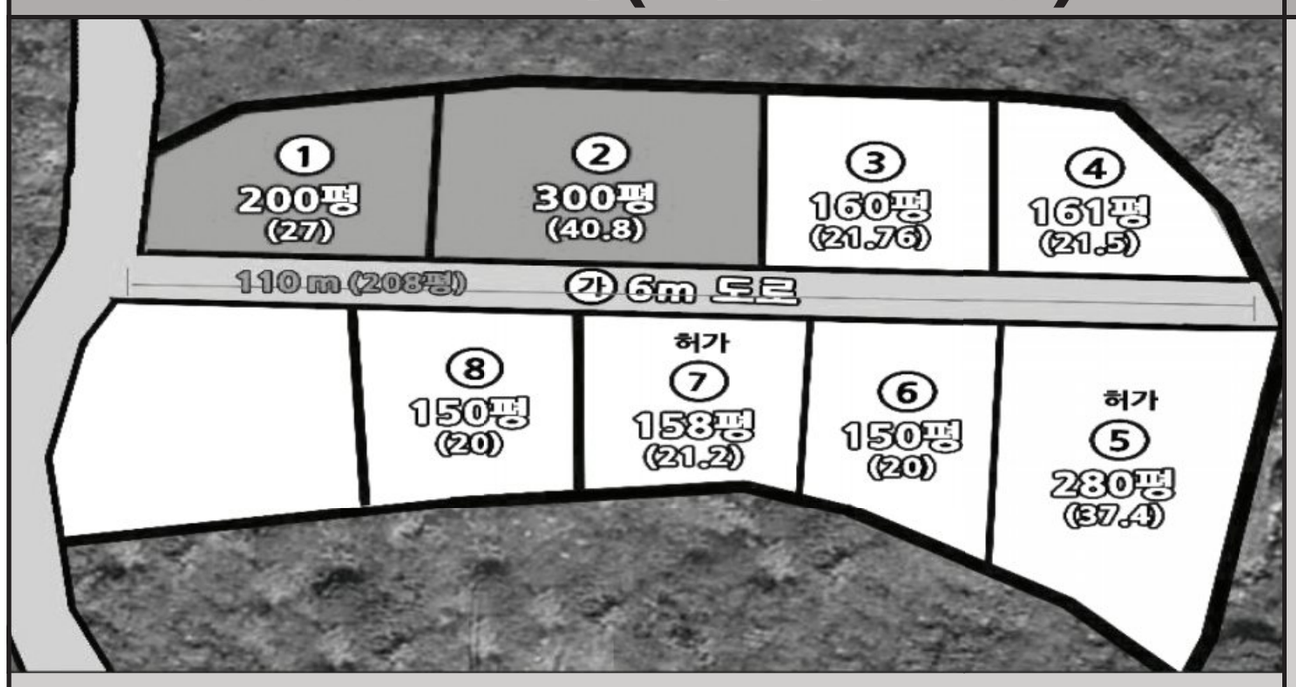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000만 가구가 계정 공유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그간 같은 가구에서 동거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험해 왔다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